

나는 이렇게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이 그리워 하늘만 바라보시는가.
 살아생전 언제나 하늘처럼 나를 바라보던 당신,
 지금도 하늘만 바라보시는가.
 당신의 쓸쓸한 방, 아랫목 이불속에 손을 넣어
 당신의 손을 슬쩍 만져 봅니다.
 그때 수줍게 고개를 돌리던 당신의 얼굴이 마냥 그림습니다.
 내년이 될지, 혹 후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난 당신의 곁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살아 한 번 고백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 고백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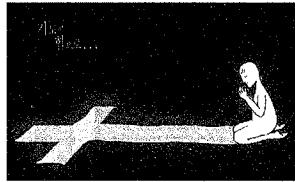
“사랑합니다”



◀그땐 그랬지▶ 권투선수 김태식
 세계챔피언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권투도장마다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식이라
 는 작은 선수가 휘두르는 주먹을 보며 모두들
 챔피언의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이제 그도 평범한 중년으로 나이 들어있는 모
 습을 보며 옛 영화도 그저 담담하게 되돌아
 볼 줄 아는 너그러움을 지나라고 말하는 듯 합
 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9권 4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10월28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산을 옮긴 믿음



어느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집 뒷산은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고 있던차,

그 설교를 들은 청년은 눈이 확 뜨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해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는 했으나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의 기도는 응답 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요,
 그리고는 낙심할 것이 뻔한 일이므로 그 목사님은
 그의 뒷처리를 좀 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청년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스무날이 가도 후퇴하지 않았습니
 다. 목사님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40일째 되던 날 청년은 빙글빙글 웃으며 목사실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라고 하고는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하며 큰 트럭들이 와서 그 흙을 계속 실어간 산이
 거의 다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

◀말씀따라 행하기▶
 주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인품따라 행하기▶
 햇빛이 뜨거우면 색안경을 써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 볼때는 색안경을 쓰지 마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36장	다 같이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186장	다 같이
기 도 Pray	정관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6:19-31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거지가 되고 싶었던 부자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63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살롬, 익투스 초청 수요 찬송예배

서 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협주)
합 창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데서
살 롬	*갈보리 산위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곤한 내영혼 편히 쉼곳과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익투스	*내 주를 가까이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합 창	*내 평생에 가는 길 *거룩한 주

『교 회 생 활』 2007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pm

1. 교우소식
*<북한에 성문밖 헌금 전달 후 귀국> 조재근 집사.
2. 『인도자. 구역장 Alpha 성경공부』
<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6:30분 <장소> Dress Room
*수요일, 조금 바쁜 저녁이 되었습니다. 10번의 모임에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배워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인도자, 구역장 모임<일시> 11월 2일(금) 새벽기도회 후
4. 익투스, 살롬 초청 수요찬양예배 <일시> 31일(수) 수요예배
*화음이 잘 어우러지면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거기에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거룩함으로 변합니다. 아름다움과 거룩함, 들려지는 찬송을 통해 체험하겠습니다.
5.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50>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못 드리는 새벽기도회, 자유로움이란 생각을 갖다가도 영력 무뎠지나 않을지 두려움도 동시에 듭니다 - 목사의 辯 -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10,520	총액: \$ 403,037.70
-----------------------	-------------------

◆11월 예배위원◆

◆11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주차안내	안 내	주 일	모임 행사
4	정희자		<현관>	7	
11	조재근		노은숙 임혜자	14	정기구역예배(9)
18	최득수	최현철 서재오	<성전입구>	21	추수감사주일
25	최재학	항존직	권광순 정희자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28	구역장.인도자 헌신예배(21)

◀착한 시인들▶ 한 줄 시

김성국

발신인 모르는 소포가 고국에서 왔다
책들만 열 댓권
자꾸 읽다보면 깨우쳐 지겠지
보낸 사람의 마음이